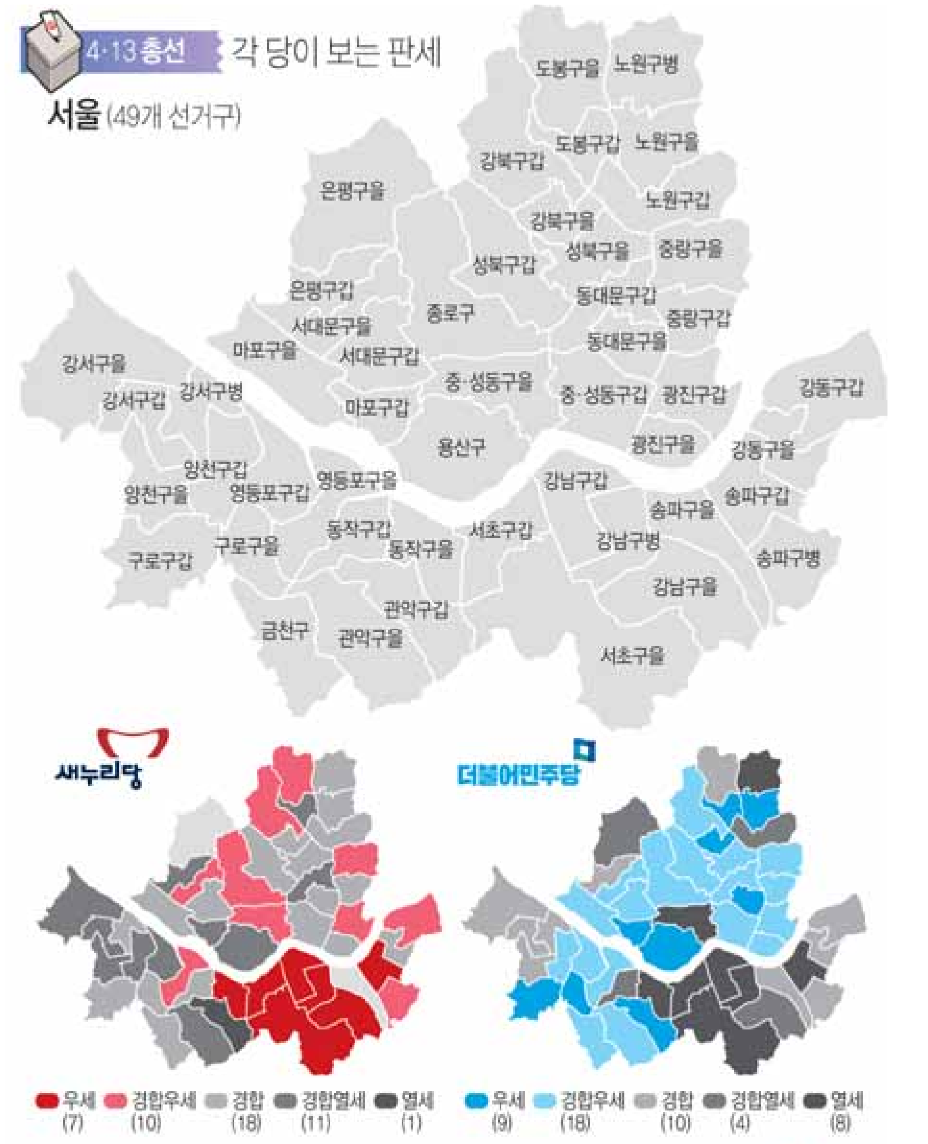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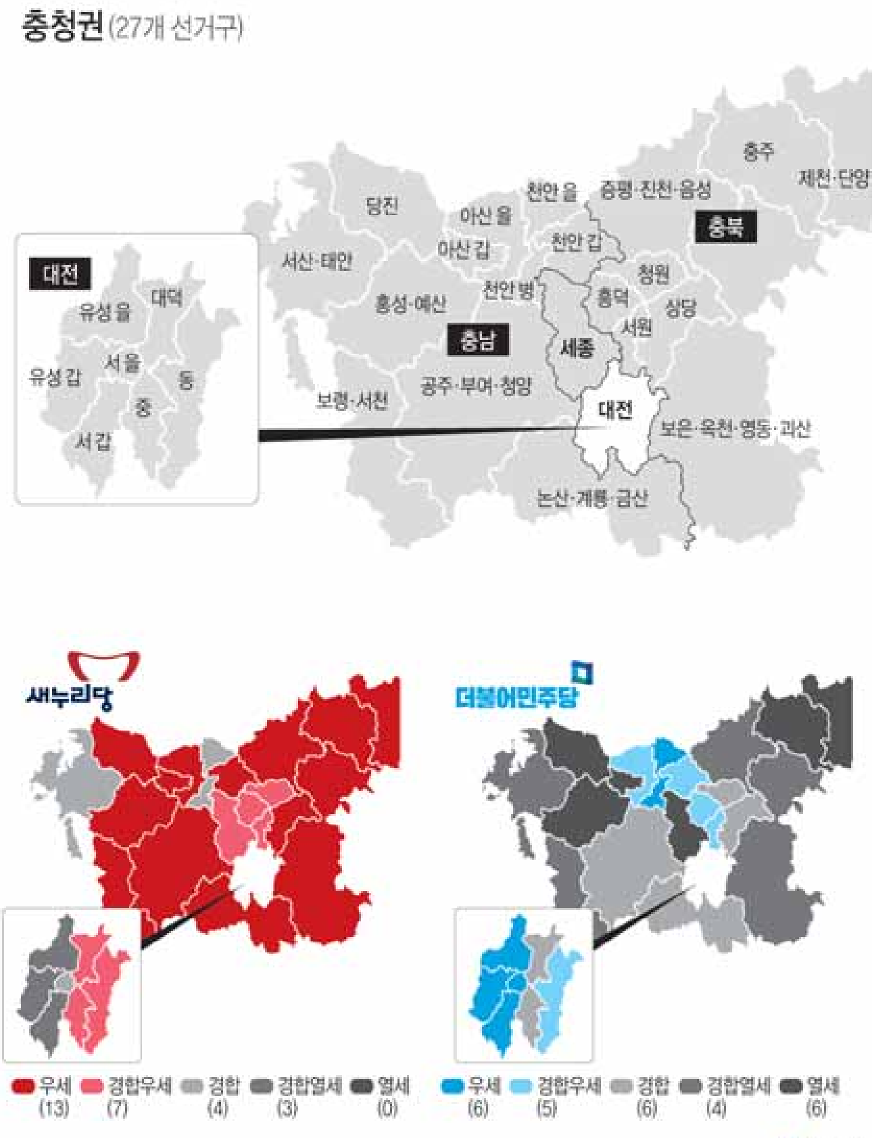
서울, 새누리 "7곳" 더민주 "9곳" 우세…32곳 '안갯속'

각 당이 보는 권역별 판세

4·13 총선이 중반으로 접어들었지만, 각 당이 분석하는 초반 판세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전체 253개 의석 중 절반에 육박하는 총 122석이 있는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구의 판세가 안갯속이어서 쉽사리 승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여당의 텃밭인 영남도 새누리당의 공천 파문으로 인해 패권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어느 정당도 확연한 우세를 장담하기 힘들 정도다.





국민의당 안철수 지역구 외엔 열세 진단

■서울

서울의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여야간 접전을 벌인 끝에 박빙으로 승부가 결정된 곳이 많아 쉽사리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막판에 이른바 '옥새 투쟁'이라고 하는 극심한 공천 갈등을 겪었으며, 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권 지지표를 나눠갖는 대결 구도여서 여당의 어부지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최악의 경우 한강 이북 지역 25곳을 모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고, 더민주 내부에선 서울에서 대패했던 지난 18대 총선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초반 선거 분위기는 각 당의 판세 분석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3일 현재 여야가 각자의 우세로 분류한 지역은 17곳(새누리당 7, 더불어민주당 9, 국민의당 1개) 정도다.

전체 49개 지역구 가운데 무려 32곳을 접전 지역으로 남겨 둔 셈이다.

새누리당은 '공천파동' 후유증으로 49개 지역구 가운데 7곳을 승리가 유력한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더민주는 강북·강서벨트의 '수성'을 기대하면서 9곳은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확보됐다는 게 내부 평가다. 9곳은 용산(진영), 동대문을(민병두), 강북을(박용진), 도봉갑(인재근), 노원을(우원식), 마포갑(노웅래), 구로갑·을(이인영·박영선), 관악갑(유기홍)이다.

국민의당은 초반 판세를 냉정히 따졌을 때 당의 간판인 안철수 후보(노원병)만 확실한 우위에 섰다는 게 내부 평가다. 다만 중·성동을(정호준), 성북을(김인원), 은평을(고연호), 강서병, 관악갑·을(김성식·이행자)은 다른 후보들과 경합한다고 보고 있다.

정의당은 은평을(김제남)을 '경합 열세'로, 나머지 지역은 모두 열세로 초반 판세를 진단했다.

여야 우세 분류 23곳…37곳 치열한 경합

■경기·인천

여야가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60석을 놓고 득표전을 벌이는 경기도는 특정 정당의 일방적 승리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혼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각 당의 초반 판세 분석에 따르면 여야 정당이 확실한 우세로 분류한 선거구는 23곳에 불과해 전체의 62%인 37곳에서 경합이 벌어지고 있는 탓이다.

특히 영·호남과 비해 지역주의 투표 성향이 덜한 탓에 19대 총선 때 무려 14곳에서 5% 이내 박빙 승부가 벌어지는 등 서울과 함께 선거의 바람을 많이 타는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이번 총선에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간 야권 분열이 주된 변수로 등장하면서 새누리당이 19대 총선에 비해 약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14곳을 우세, 14곳을 경합우세로 각각 분류했다. 60곳 중 절반에 가까운 28곳에서 상대적 우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경합지역 11곳 중 몇 군데를 더 이기면 과반도 넘볼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더민주는 우세 8곳, 경합우세 12곳 등 20곳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더민주가 상대적 우위로 분류한 20곳은 현재 현역의원이 있는 선거구 25곳에도 못미치는 수치로서, 야권 분열로 인한 열악해진 선거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의당은 60개 선거구 중 48곳에 후보를 냈지만 우세로 분류한 지역은 없다. 현역 의원이 있는 안산 상록, 안산 단원을 2곳을 경합우세 지역으로 봤다.

13명의 후보를 배출한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의 지역구인 고양갑 1곳만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2곳은 경합열세, 10곳은 열세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13곳의 의석이 걸린 인천도 예측불허의 싸움터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우세' 지역으로 분류한 곳은 각각 1곳뿐이다. 새누리당은 홍일표 의원의 남갑, 더민주는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계양을을 우세지역으로 꼽았다. /최권일기자 cki@·연합뉴스

'충청당' 없는 선거…새누리·더민주 각축

■충청

충청권은 역대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를 행사해온 곳이어서 여야간 '중원다툼'이 치열했다.

이번 4·13 총선은 지난 1996년 15대 총선 이후 20년만에 충청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없이 치러지는 총선이어서 충청표심의 향배가 주목된다. 이번 총선 충청권의 선거구수는 모두 27개다. 새누리당은 청주 상당, 충주 등 7곳을 우세지역으로, 대전 동구, 중구 등 11곳을 경합우세로 분류했다. 대전 서구을 등 3곳은 경합지역, 대전 서구갑 등 5곳을 경합열세로 분석했다.

새누리당은 충북과 충남에서 우세를 점쳤고, 대전은 대부분의 지역을 경합지역으로 보고 있다.

더민주는 대전 서구 갑·을, 유성 갑·을 4곳과 충남 천안 을·병 2곳 등 6곳을 우세지역으로 판단했다. 대전 동구 등 충청지역 5개 선거구에서 경합 우세, 대전 중구와 대덕구 등 4개 선거구에서는 경합으로 분류했다. 국민의당은 1곳만 경합, 8곳은 경합 열세, 11곳은 열세지역으로 분류했다.

무소속 약진…새누리 전석 석권 빨간불

■영남

전통적으로 여당의 텃밭이자 아성인 영남권 65개 선거구 가운데 새누리당은 후보를 낸 64곳 가운데 41곳, 경합우세 9곳, 경합 9곳, 경합열세 3곳, 열세 1곳, 무투표 당선 1곳 등으로 분석했다.

더민주는 공천 지역구 48곳 가운데 우세 2곳, 경합우세 1곳, 경합 6곳, 경합열세 7곳, 열세 32곳으로 각각 분류했다. 국민의당은 영남 공천지역 17곳 모두에서 열세를, 정의당은 노회찬 전 대표가 출마한 경남 창원·성산 1곳에서만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각각 분석했다. 여권의 철옹성에서 이번 총선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오른 대구에서는 수성갑에서 여야가 모두 더민주 김부겸 후보가 새누리 김문수 후보보다 경합우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절반 가까운 110곳 대혼전

새누리 77곳, 더민주 35곳, 국민의당 20곳 우세 꼽아

■전국 판세

이번 4·13 총선에서 각 당의 초반 자체 판세분석 결과 '우세' 지역으로 새누리당은 77곳, 더민주는 35곳, 국민의당은 20곳, 정의당이 2곳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우세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일부 선거구를 제외한다면 전체 253개 선거구중에서 110곳 이상의 지역구가 아직도 어느 정당도 확연한 우세를 장담하기 힘들 정도로 선거 초반 판세는 대혼전 양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해 첫 주말을 지나고 선거를 열흘 앞둔 3일 현재 각 정당의 선거전략 단위에서 집계한 자체 판세 결과를 토대로 초반 판세를 분석한 결과다. 각 정당은 253개 지역구를 자체 또는 언론사의 지역구별 여론조사와 당 지지도, 역대 선거결과 분석, 현지 민심 동향 실사 등을 바탕으로 판세를 '우세'-'경합우세'-'경합'-'경합열세'-'열세'의 5점 척도에 따라 구분했다. 정당별 자체 판세 분석인만큼 특정 지역구에 대해 한 정당은 '우세'하다고 평가해도 다른 정당은 '경합' 또는 '경합우세'로 보는 경우도 있어 정당별로 판단이 다를 수도 있고, 향후 선거운동 과정에서 판세는 달라질 수 있다.

새누리당이 '우세' 지역으로 꼽은 77곳은 ▲수도권 22곳 ▲대구경북 17곳 ▲부산울산경남 25곳 ▲충청권 7곳 ▲강원 6곳이다.

더민주가 꼽은 35곳은 ▲수도권 18곳 ▲호남 8곳 ▲충청권 6곳 ▲부산울산경남 2곳 ▲강원 1곳으로 분포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우세' 지역으로 꼽은 20곳은 서울 한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호남지역이다.

정의당은 경기, 경남 선거구 각각 한 곳에서 우세지역을 꼽았다. /연합뉴스

HNT 하나투어

이달의 추천 여행 도시! 체코-프라하
❶커플당 20만 마일리지 제공 ❷SM면세점 카드 3만원 권(커플당 1장)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충장점
(동구 불로동 96-7)
문의전화 062)228-1199

TALK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충장점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충장점 친구 추가하세요!
1. 카카오톡 친구 탭
2. 우측 상단의 친구찾기 버튼
3. ID검색에서 아이디 입력 또는 QR코드 스캔

전통 맥주 스파 무료 포함
클래식 프라하/체스키크롬로프7일
EEW301_OKM 2,180,2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없음/선택경비 있음
호텔 : 부띠크 호텔 (시내 4성급)
요일 : 매주 일/월
항공 : 체코 항공(OK항공)
특전 : 미팅/샌딩 서비스
까를로비바리 기념 커플잔
특식 : 로브코비츠 궁 코스 요리

전통 맥주 스파 + 고성호텔 숙박
클래식 프라하/비엔나 8일
EEW302_AYM 2,521,2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없음/선택경비 있음
호텔 : 부띠크 호텔 (시내 4성급)
요일 : 매주 일/월
항공 : 핀에어(AY항공)
특전 : 미팅/샌딩 서비스
비엔나 음악회/ 쉔부른 궁전 관람
특식 : 로브코비츠 궁 코스 요리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훼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칭찬/불편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I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철수 권고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I www.HanaTour.com